

【특집 ·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곽충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북한의 언어(이하 '북한어'라 부름)와 언어정책의 추이를 호기심 어린 눈 초리로 바라보던 것은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다. 이 무렵은 국가기관이 배포한 자료집이나 홍보 자료 또는 논문을 통해 북한어의 실상을 엿볼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가 출간되고, 북한의 어문 관련 서적이 영인 출판되면서 북한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은 북한의 사전도 널리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국내의 여러 대사전에도 북한어가 올라 있다. 또 북한어 관련 연구 서적도 많이 간행되었고 국어 교과서에도 북한어를 소개한 글이 실림으로써 이제는 누구나 북한어에 쉽게 접근하고 그 실상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어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한편에서는 이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질화의 골이 깊어질수록 민족의 동질성은 점차 약화되고 중국에는 민족의 정체성마저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최근 여러 학술 단체가 남북한어의 이질화나 어문 규범의 통합 방안을 놓고 학술회의를 자주 여는 것도 이질화의 실상을 학술적으로 밝

히고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실상과 허상'을 지적하는 것이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나 이는 매우 어렵고도 조심스러운 일이다. 북한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언어정책과 북한 주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 편견 없이 사실적으로 접근하고 기술하려는 태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글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다소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편견을 가지고 북한어를 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질화를 깊이 우려한 나머지 민족어의 장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사실 이상으로 그것을 침소봉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동질성의 확인보다는 너무 이질화에 집착한 점도 문제라면 문제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질화의 요인과 배경을 간단히 언급하고 지금까지 피상적인 관찰에 머물렀던 이질화에 관련된 몇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북한어의 실상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자 한다. 특히 고빈도 어휘에서 발견되는 동질성, 북한의 방언이 북한어 형성에 미친 영향, 어휘 체계의 변화 등을 북한의 방언과 관련지어 말해보고자 한다.

2. 이질화의 요인과 실상

광복과 함께 국토가 분단이 되면서 남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정치 체제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이념'과 '단절'은 민족어 이질화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남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북은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하여 각기 다른 세계관과 제도를 갖게 되면서 북은 유토피론과 기능적 관점, 남은 이성주의적 관점의 언어관을 견지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의 힘 있는 무기"라는 그들의 말대로 북한은 언어를 의사 소통의 도구로 보았다. 이러한 언어관에 바탕을 두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언어정책을 수립해 왔다. 북

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으로부터 언어 이론과 언어관을 수용하고 그 바탕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필요한 신어를 양산하고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사회주의 이념을 빠르고도 광범위하게 전파시키고 동시에 그 체제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새로운 세계관을 반영하는 사회주의 용어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가 전파되어 사회주의 관련 용어들이 일본을 거쳐 차용되기 시작하였지만 광복 이후에는 종주국이자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이념과 관련된 직접 차용어와 번역 차용어가 수입되었다. 한편, 남은 민족어의 보존과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외국어나 비표준적인 말을 순화하여 보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영향으로 영어 중심의 외국어가 대량으로 들어와 쓰이게 되었다. 남/북에서 흔히 쓰이는 ‘마이너스/미누스, 트랙터/뜨락또르, 그룻/그루빠, 매트리스/마다라스, 캠페인/깜빠니야’와 같은 외래어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 구도로 재편된 세계 질서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후 독일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해방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으로 이와 관련된 새 용어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남과 북은 독자적으로 신어를 만들어 씀으로써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또 신어를 생산하는 방식도 달라서 남은 한자에 많이 의존하고 북은 고유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북도 정치·군사·과학·기술 용어나 김일성 부자에 대해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 등은 한자 조어가 많다. 때문에 남한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한자어 ‘가전품(家電品), 교도소(矯導所), 교통체증(交通滯症), 부도(不渡), 예식장(禮式場), 운전기사(運轉技士), 영안실(靈安室), 파출부(派出婦), 학점(學點)’과 같은 한자어가 생겨났고, 반대로 북한에서는 남한 주민이 알 수 없는 ‘가두녀성(街頭女性), 보양소(保養所), 점적대(點滴臺), 망원초(望遠哨), 적구(敵區), 타승(打勝), 합영법(合營法)’과 같은 한자어가 생겨났다. 또 남북한에서 다 함께 쓰이는 한자어지만 그 의미가 약간 달

라진 것도 있다. ‘군중(群衆), 긴장(緊張), 담보(擔保), 사업(事業), 장악(掌握)’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북은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반자본주의,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와 관련된 기존의 관념이나 제도를 부정하고 배척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단어가 의미 변화를 겪게 되거나 혹은 아예 폐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이념의 고취나 정치적 선전선동을 위한 표현으로 인해서 단어의 의미가 부분적으로 변화한 경우도 있다. 남에서는 언어의 변이나 변화를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급격한 변화는 적었지만 역시 사회주의와 관련된 각종 용어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북한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 다른 이념적 배경과 언어관 속에서 언어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민족어의 순수성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남북이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남북에서 벌어진 문맹퇴치, 한글전용 운동도 그러하거니와 그 후 남북에서 독자적으로 벌인 국어순화나 말다듬기 운동의 밑바탕에도 그러한 정신이 깔려 있다. 북은 1960년대부터 말다듬기 및 문화어 운동을 통해 인위적인 언어 개혁을 오랫동안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다. ‘말다듬기의 대상’과 ‘말다듬기의 작업 원칙’을 세우고 거국적으로 이 운동을 벌여 온 결과 1982년에는 5만여 개의 ‘다듬은 말’을 발표했고 이를 재검토하여 1986년에는 약 2만 5천여 개의 ‘다듬은 말’을 확정하였다(『다듬은 말』, 1986). 무리한 개혁이 몰고 온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절반에 가까운 다듬은 말을 폐기한 것이다. 남한도 이에 못지 않게 국가기관인 국어심의위원회와 민간 연구 단체인 한글학회 등에서 ‘국어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최근의 것만 해도 한글학회가 펴낸 『쉬운말 사전』(고침판, 1984)이나 문화체육부의 『국어순화용어자료집』(1996),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순화자료집』(1992, 1993, 1999, 2000) 등이 있다. 그렇지만 북은 이러한 개혁 운동을 관 주도하에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한 데 비해 남은 그때그때 사안을 심의하여 이를 고지하고 보급·장려하는 정도였다. 북이 개혁적이라

면, 남은 개량적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떻든 민족어를 기반으로 하여 외래적 요소를 고치고 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은 남북이 같았지만 그 내용 및 실천에 옮기는 방법과 과정은 남과 북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남과 북의 언어정책이 단절 속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된 까닭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질화를 깊게 한 요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남북한이 오랫동안 국어순화나 말다듬기 운동에서 견지해 온 정신과 또 그 과정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은 민족어 재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은 말다듬기와 같은 일련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북한 지역 방언의 일부를 문화어로 삼기도 하였다. 종래의 표준어가 폐기되고 북한의 방언이 그 자리를 차지한 예도 있고 표준어와 방언이 함께 문화어로 오른 예도 있으며, 또 여러 지역의 방언이 함께 문화어가 된 예도 있다. 그리고 한자어나 외래어를 다듬는 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방언이 말다듬기의 재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같은 방언의 수용은, 첫째 남한의 표준어를 배제하고, 둘째 고유어의 빈곤을 방언을 통해 보충하고, 셋째 말다듬기의 재료로 활용하며, 넷째 '인민의 생활 감정'에 맞는 어휘를 문화어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방언을 배제함으로써 남북한의 어휘 체계가 달라지게 되었다(3.2, 3.3을 참고). 남한에서는 방언을 표준어로 삼는다거나 방언을 국어순화의 자료로 이용한 적이 거의 없으니, 언어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방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남북에서 그 차이가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언어는 지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에 따라 끊임없이 분열과 통합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언어가 지닌 고유한 성질 때문에 고립과 단절 속의 남북한 언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 방언의 음운체계는 평양 방언을 닮아가고 있다. 평양 방언은 'ㄱ, ㅋ, ㆁ, ㄷ, ㅌ, ㅈ'의 6모음체계인데, 종전에 10모음체계를 가지고 있던 함경도 방언 화자도 이 6모음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함경도에서 종전에 설배적 치조경구개음으로 조음되던 'ㅈ'도 평안방언처럼 설단적 치조음 [ts]로 조음되는 경향이 현저하다. 또한 북한의 맞춤법 개정으로 야기된 어두 위치의 'ㄹ'이나

‘ㄴ’ 발음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화어 운동(이와 함께 추진된 사투리 없애기 운동)의 영향으로 문화어가 빠르게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 역시 표준어의 확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언어의 분열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남과 북의 언어는 각각 정치·문화의 중심지 방언으로 통합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념과 정치 체제, 인위적인 언어 개혁, 정치적 유대국 언어의 영향과 같은 언어외적 요인과 언어내적 요인에 의한 변화로 남북한어는 필연적으로 이질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념(체제)’과 ‘단절(고립)’이라는 두 변화의 축 위에서 민족어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요인이 배제된 채 오로지 분열의 길만을 걸어온 것이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남한어와 이질적인 ‘북한어’는 무려 63,000여 개에 달한다 한다. 북에서 쓰이지 않는 남한어는 그 이상이 될 것이고 보면 이질화가 어느 정도인지 쉬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어와 전문어의 이질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1에서 잠시 언급하겠지만 일상어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지만 전문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구에 다칠 북한과의 학술 교류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남북 의학 용어의 차이를 밝히고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의도로 간행된 『남북한 의학 용어』(대한의사협회, 1996)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3. 이질화와 관련된 몇 문제

3.1. 고빈도 어휘의 이질화 정도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고빈도의 단어들은 그 의미와 용법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최근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연구 개발된 남북한 언어비교사전에서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말жат

기조사』(1956, 문교부)와 『조선말대사전』(부록 4 :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 일람표) 등을 참고하여, 남북한 공히 빈도수 1만 등 내외에 드는 단어들을 가려 뽑은 다음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주석을 비교하여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한 것이다. 표기·발음·문법·의미·관용 표현을 비교한 결과, 맞춤법과 같은 어문 규범상의 차이는 컸지만 어휘 의미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이념·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하여 해당 어휘의 주의미에서 번져나간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서로 다른 이념적 지표 또는 북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북한 방언의 간섭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선전선동이나 교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거나 그러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새로운 표현 수법, 즉 비유적 표현 또는 문체적 요인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다. 사전에는 그러한 의미가 독립된 의미 내항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제도가 어느 정도 완화된 교류가 확대되면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용 표현에서는 어문 규범 못지 않게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주로 북한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속담이 북한의 사전에 풍부하게 조사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민족어의 이질화를 우려한 탓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이질성만을 강조한 면이 없지 않다. 고빈도의 어휘에서 많은 동질성을 확인한 것은 그만큼 민족어의 통합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다. 단어는 그 단어가 쓰이는 지역 또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사회적 성층에 따라 의미의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남북한어의 의미차는 이념이나 사회 제도 또는 방언의 간섭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는 방언(사회 방언 또는 지역 방언) 분화 정도의 차이로 보아 좋을 것이다.

3.2. 문화어와 북한의 방언¹⁾

북한의 사전에는 백석(평북 정주 출신)이나 이용악(함북 경성 출신)의 시에서 볼 수 있는 토속적인 방언형이 상당수 표제어로 올라 있다. 이처럼 북한 지역의 방언이 문화어가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북한이 방언을 문화어화한 목적이나 그 실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북한어 관련 논문에는 약 3천여 개의 북한 방언이 문화어로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3천여 개의 방언만이 오른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방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어화하였을까. 김일성의 교시 가운데, “방언에서도 좋은 것을 가려써야 합니다.”라고 한 말이나, 북한의 대표적인 방언학자 김병제가 『방언사전』의 서문에서, “문화어는 방언 가운데서 아름답고 인민적인 요소들을 모조리 받아들여 자체를 더욱 풍부히 하며 방언은 오랫동안 자기 체계 안에 간직하여 온 아름답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언어 요소들을 문화어에 넘겨주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한 내용에서 북한의 방언이 문화어로 오르게 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화어로 삼은 방언은 어디까지나 ‘북한 지역의 방언’이지 남북한의 이곳저곳에 분포하는 방언은 아니다. 문화어에 스며든 북한 지역의 방언을 그 수용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표준어를 버리고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올린 경우.
- 2) 표준어와 북한의 방언을 함께 문화어로 올린 경우.
- 3) 한자어나 외래어를 다듬는 과정에서 북한의 방언을 다듬기 재료로 활용한 경우.
- 4) 표준어에 북한 지역의 방언 의미를 담은 경우.

1) 서북 방언, 동북 방언이라는 학술 용어 대신, 평안방언, 황해방언, 함경방언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5) 북한에서 널리 쓰이면서, 남한의 표준어로 대체하기 어려운 평안 및 함경방언을 문화어로 올린 경우.

1)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준어	문화어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거위[鵞]	계사니	계사니	계사니, 계사이	당아니
고누	꼬니	꼰, 꼬누	꼬니, 꼬늬	
다리[髒]	달비	다루, 다래, 달비(평북)	달비	다래, 달래, 달비
명아주	능쟁이	능쟁이	능재이, 능재	능쟁이

위 예처럼 표준어를 버리고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위 문화어는 북한의 농촌 지역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다. 표준어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준어를 버리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방언으로 메운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로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서부 방언에 그 터를 둔 표준어가 대다수 북한 주민에게는 낯선 말이어서 일상적으로 쓰는 북한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것이다. 그들의 표현대로 “인민들의 생활 감정에 적합한 것”을 문화어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2)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준어	문화어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질경이	질경이/질짱구	길짱구(귀), 떨짱구	배꼬개, 배짜개	길짱구
책상다리	책상다리/올방자	올방재 티다	올방자 틀다	올방자 틀다
		가치다리 틀다		
고물	고물/무치개/보숭이	보숭이 ²⁾	곰물, 무치개	보숭이
대님	대님/고매끼	고매끼	오곰매개	고매끼

2) 고물은 재료에 따라 ‘깨보숭이’, ‘콩보숭이’라 부른다. ‘보숭이’ 외에 ‘보쟁이, 보싱이, 보생이’와 같은 방언형도 있다.

위 예는 북한 방언과 표준어가 모두 문화어로 오른 것이다. 주로 평안·황해방언에 속하는 것들을 문화어로 삼았는데, ‘고물’의 경우는 함경방언 ‘무치개’도 문화어로 삼았다. 한편, ‘질경이’는 『현대조선말사전』에서 비규범적인 말로 처리된 바 있으나 『조선말대사전』에 다시 등재되어 문화어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표준어를 폐기하지 않고 북한 방언과 함께 문화어로 삼은 것은 표준어가 이미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쓰인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예는 꽤 많은데, 장차 통일이 된다면 복수 표준어로 사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3)과 같이 말다듬기의 재료로 방언을 이용한 것으로는 ‘따발굴(←라선형 터널)’, ‘굽인돌이(←커브)’ 등이 있다. ‘따발’은 ‘따바리’의 준말로 ‘파리’, ‘또아리’와 함께 복수 문화어이다. ‘따바리’는 함경방언이고 ‘또아리’는 ‘똥아리’와 함께 평안·황해도의 방언이다. 북한 전역의 방언을 모두 문화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따발총’, ‘따발진’을 비롯하여 다듬은 말의 ‘따발굴’까지도 평안방언이 아닌 함경방언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굽인돌이’ 역시 함경방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어로 오른 방언이 꼭이 평안방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 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어 쓰면서 북한 방언을 적극 활용한 예이다.

장인(丈人), 장모(丈母), 처가(妻家)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다듬기의 대상이 되어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 ‘가시집’으로 바뀌었다. ‘장인’의 평안·함경·황해방언은 ‘가시아바니, 가시아바지, 가시아비, 가새:비’ 등인데, 그에 터잡아 ‘가시’에 표준어 ‘아버지’, ‘어머니’를 합성하여 문화어로 삼았다. 위 방언은 호칭어가 아닌 지칭어이고 일부 계층에서만 쓰이던 말이어서 ‘가시아버지’와 같은 다듬은 말이 실제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쓰이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문화어는 민족어의 순수성이나 전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다듬어진 것들이다.

4)와 5)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의 방언에 대한 정밀한 자료 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4)는 표준어와 형태는 동일해도 표준어의 의미와 북한 방언의 의미가 차이날 때 북한 방언의 의미를 문화어에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남한과는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쓰는 방언 의미를 사전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예 하나를 보기로 한다.

바쁘다 ① 힘에 부치거나 참기가 어렵다. ॥ 사흘 동안에는 좀 바쁘겠다.

② 매우 딱하다. ॥ 보기 바쁘다. 말하기 바쁘다. (『조선말대사전』)

이처럼 형태가 동일한 단어가 남북한에서 의미차를 보이는 경우를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위와 같이 방언적 의미가 가미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을 강조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파도’와 ‘멀기’ 등).

한편,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독특한 방언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방언이 문화어가 된 예로 ‘드베’가 있다. ‘드베’는 조나 수수의 씨를 파종할 때 쓰는 재래식 농기구로 주로 함북 지방에서 쓰인다. 박의 속을 파낸 통에다 속이 빈 대나무를 대어 만든 것으로, 씨앗을 넣은 박통을 두드리면 씨가 밖으로 나와 밭고랑에 떨어지도록 만든 기구이다. 그런데 ‘드베’처럼 구체적인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명사 외에 동사나 형용사도 표준어로는 대치할 수 없는 방언이 있게 마련이다. 또는 의미가 비슷하더라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방언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수 문화어가 되었다. 가령, 평안방언의 ‘아수하다’(함경 방언은 ‘애수하다’, 아깝고 서운하다), 함경도에서 널리 쓰이는 ‘애모쁘다’(성화를 받거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애타고 안타깝다), ‘죄롭다’(몹시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가궁스럽다), ‘얼뻘하다’(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하다) 따위가 그와 같은 예이다. 아래 ‘번디다(또는 번지다)’도 같은 예로서, 필자가 중국 조선족이나 남한에 거주하는 실향민을 대상으로 함경도

방언을 조사할 때 일상적 발화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말이다. 이 예를 통해서 방언이 문화어가 되어 사전에 오른 과정을 보기로 한다.

필자의 조사(함북 방언)

- 1) 가대길르 흙으 번디오(극쟁이로 흙을 갈아넘기오).
- 2) 저 아 자란이 한 말으 곰만 번디오(저 아이가 어른이 한 말을 금방 옮기오).
무스거 말인지 번져 보란 말이오(무슨 말(뜻)인지 풀어서 옮겨 보란 말이오).
마우재말으 조선말르 번지꾸마(러시아말을 조선말로 번역합니다).
- 3) 역세르 번지오(달력을 한 장 넘기시오).
- 4) 아침을 번젼오(아침을 걸렀소).
- 5) 강판에서 번테디다(얼음판에서 넘어지다).
술기 번테디다(수레가 뒤집어지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풀이되어 있다.(뜻풀이만을 요약)

- 1) (종이장)을 한 장씩 넘기다.
- 2) (시간이나 력사 등을) 지내보내거나 새기여 넘기다.
- 3) 제대로 하지 않고 건느거나 걸르다.
- 4) 말로 옮기여 말하거나 글로 쓰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여 번역하거나 통역하다.
- 5) (물건을) 제끼거나 뒤집다.
- 6) 엎어지거나 뒤집히다.
- 7) (사람의 모습이나 됃됨이) 자라면서 달라지다.
- 8) 어떤 병이 다른 병으로 변하다.

위 예는 북한 지역의 방언과 문화어와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김이협 선

생의 『평북방언사전』에, “번디다¹ :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번디다² : 거르다 (끼니를 거르다)”와 같은 뜻풀이와 용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평북 방언에서도 널리 쓰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번지다’가 북한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풀이는 사전 편찬자가 자신의 방언에 의지했던 사전 편찬 목적으로 구축된 말뭉치에 의지했든 또는 현지 조사에 의지했든, 북한 방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밀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끓어번지다’, ‘튀번지다’, ‘나가번지다’와 같은 합성어도 사전에 올랐다. ‘번지다’와 함께 그와 관련되는 어휘도 두루 조사하여 문화어로 삼은 것이다. ‘번지다’는 『조선어 소사전』(1956)에는 없고, 『조선말사전』(1960)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조선말사전』의 편찬이 이루어지던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방언을 사전에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조선말사전』(1981)에는 5개의 의미 내항만이 들어 있지만,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는 뜻풀이가 보강되고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새로 사전을 편찬할 때마다 방언 의미를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방언으로서 문화어가 된 또 다른 예를 보기로 한다.

필자의 조사(함북 방언)

거두매

- 1) 들에서 일하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벌여 놓은 것을 주섬주섬 거두어들이다.
 - 2) 집안의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수습하여 정리하다.
- [참고] 거두매르하다=밥을 먹고 난 후에 그릇을 닦거나 부엌을 정리하다. =설겅이하다.

문화어

거두매 : 하던 일이나 벌려놓은것을 거두어서 마무리하는 것. 거두매질.
(『조선말대사전』)

거두매 - 거두매질

→뒤거두매 - 뒤거둬질

=뒤거둬새

→방거두매 -방거두매질

→부엌거두매

→일거두매(일을 거두어 나가는 모양새. 또는 일을 거두어서 마무리하는 일.)

→집거두매(집을 가꾸고 관리함.)

→집안거두매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거두매’를 문화어로 올리고 이 단어를 어기로 한 파생어와 합성어도 사전에 모두 올렸음을 알 수 있다. ‘거두매’는 함경도에서 쓰이는 방언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어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전역의 방언을 폭넓게 검토하고 문화어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형적인 북한 방언은 1960년대에 말다듬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어에 편입된 것들이다.

방언을 문화어화하면서 형태는 동일하지만 지역에 따라 의미를 보이는 경우, 이를 어떻게 사전에 반영해야 할지 고민한 흔적도 『조선말대사전』에서 볼 수 있다. 그 한 예가 ‘어부재기’, ‘아부재기’로서, 이 단어는 김이협이 『평북방언사전』과 김태균의 『함북방언사전』에도 올라 있다.

『현대조선말사전, 1981』

아부재기: [명] ① 요란스럽게 부르짖거나 소리치는 것 또는 그 소리. ② 아픔이나 어려움을 억지로 꾸미거나 과장하여 나타내는 태도나 말. (같은말) 아우성.

『조선말대사전, 1992』

어부재기: [명] (어떤 행동이나 상태에) 거슬러 맞서거나 엇나가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행동이나 마음. =어부작, 어부재기(를) 치다, 어부재기를 부리다:일부러 어부재기를 나타내다.

아부재기: [명] (말체) ① 아픔이나 어려움을 과장하고 엄살을 부리는 태도나 말. ㄱ ~ 를 치면서 야단하다. ㄴ 아우성 ② ㄹ ≪아우성①≫을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

『평북방언사전』에는 ‘어부재기’가 ‘아부재기’의 큰말이고, 뜻은 ‘엄살’로 되어 있다. 반면, 『함북방언사전』에는 표준어 ‘고함’, ‘아우성’의 방언으로 되어 있다.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는 듯하다. 필자의 함경도 방언 조사에서는, ‘사람이 싸우면서 서로 맞대거리를 하며 고함을 치거나 울부짖는 행동이나 말’을 뜻하였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승냥이’나 ‘황소’와 같은 동물에게도 쓰이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현대조선말사전』의 뜻풀이 ①에 가깝다. 평안도방언의 조사에서는 『현대조선말사전』의 뜻풀이 ②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요컨대, 『현대조선말사전』의 뜻풀이 ①은 함경방언, ②는 평안방언의 의미인데, 그 뜻풀이 ①을 『조선말대사전』에서는 표제어 ‘어부재기’에, ②는 표제어 ‘아부재기’에 담았다. 필자의 조사 경험에 의하면 평안방언과 함경방언에서 ‘아부재기’는 ‘어부재기’의 작은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말대사전』에서 ‘어부재기’를 추가하고 그 뜻풀이를 ‘아부재기’와 달리 해 놓은 것은 추측컨대, 형태는 동일하고 의미가 다른 방언형을 사전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형태와 의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때문으로 보인다.

3.3. 남북한 어휘 체계의 변화

지금까지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논의할 때에는 으레 남한 또는 북한에

서만 쓰이는 개별 단어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단어는 의미 또는 형태 상으로 다른 단어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어휘의 이질화 문제는 개별 어휘의 같고 다름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휘 체계상의 차이에 주목하고 그 실상과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말다듬기는 단순히 신조어의 생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휘 체계를 바꾸어 놓기도 하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기로 하자.

표준어(남한)	문화어(북한)
내(煙氣)	→ 내/내굴(복수 문화어)
내다(동사)	→ 내다/내굴다(복수 문화어)
넙다(형용사)	→ 넙다/내구럽다(복수 문화어)
연도(煙道)	⇒ 내굴길(x연도)
연실(煙室)	⇒ 내굴칸(x연실)
연무(煙霧)	⇒ 내굴안개(x연무)
훈연(燻煙)	⇒ 내굴쏘임(x훈연)
훈제(燻製)	⇒ 내굴찜(x훈제)
훈제품(燻製品)	⇒ 내굴찜제품(x훈제품)

‘내굴’은 함경도 및 평안도 일부 지역에서 쓰이는 ‘내(煙氣)’의 방언이다. 함경·평안도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함경도의 많은 지역어에는 ‘내구럽다’라는 말은 없고 ‘내굴다’가 [동작성]과 [상태성]을 지닌 채로 쓰인다. ‘내구럽다’가 함남의 일부 지역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업-’이 동사를 형용사로 파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접사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파생어 ‘내구럽다’를 문화어화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부 방언형인 표준어 ‘내, 내다, 넙다’를 폐기하지 않고 방언형 ‘내굴다, 내구럽다’와 함께 복수 문화어로 삼았다. 추측컨대, ‘내, 내다’가 문어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내굴’의 어근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 쓰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일반어 중 한자어는 말다듬기의 대상이 되므로 순수 고유어로 바꾸었는데, 모두 '내굴'을 선행어기로 하여 다듬었다. 이렇게 말다듬기 과정에서 본디 표준어였던 '내'보다 북한 방언 '내굴'을 앞세운 것은 북한에서 '내'보다 '내굴'이 더 많이 쓰이는 데다가, '내'를 합성어의 어기로 삼아 '내길, 내쏘임, 내칸, 내안개'처럼 다듬어 쓰면 의미의 불투명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은 방언을 문화어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어휘의 체계성을 염두에 두고 인위적인 변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각용언의 계열어 '시다(酸)'는 방언형 '시굴다', '시굴업다'를 문화어로 삼지 않았다. 계열어까지 고려하여 어휘 전체의 체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북한의 이러한 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남북한어의 어휘 체계는 일정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위 예는 북한 방언에 기반을 두고 고유어와 한자어를 다듬은 사례를 보인 것이다. 아래 보일 예는 앞의 것과는 사뭇 달라서 남한어와 북한어의 대응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농기구의 하나인 '쟁기'는 어원적으로 '도구, 연장'의 뜻을 지닌 '잠기'에서 변화한 말이다. 남한에서는 '논밭을 갈아엎는 농기구의 하나'를 뜻하여 그 지시 의미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북한 지역 방언에서는 아직도 '농기구' 외에 '도구'라는 고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원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쟁기'뿐만 아니라 '쟁기'와 관련된 부속 명칭도 이와 흡사한 의미차를 보인다. 때문에 농기구 '쟁기'와 관련된 어휘 체계는 남북한에서 자못 복잡 미묘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쟁기와 관련을 맺고 있는 명칭과 그밖의 농기구를 보면서 남북한의 어휘 체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기로 하자.

표준어	문화어
농기구, 도구	⇒ 쟁기
쟁기, 극쟁이	⇒ 보습, 틀보습, 쌍보습(=겉기), 보연장, 연장, 후치, 가대기...

흙밥	⇒ 보습밥
보습	⇒ 보습날(후치날)
벗	→ 벗, 보습벗(후치벗, 흙벗, 호리벗)

갈퀴	→ 갈퀴, 괄지
밭귀	⇒ 파리, 밭구
x	드베
트랙터	뜨락또르

사물 개개의 명칭도 다르지만, 그 체계 역시 다르다. ‘쟁기’, ‘보습’은 남북한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땅을 갈아엎는 농기구를 남한에서는 크게 ‘쟁기’와 ‘극쟁이’ 정도로 구분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여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따라 관련 어휘들의 명칭도 연쇄적으로 달라졌다. 또한 여기서 파생된 합성어는 셀 수 없이 많다. ‘보습밥, 보습벗, 닳보습, 련걸보습, 보습채탄기(-採炭機, 절삭 공구가 보습처럼 생긴 채탄기)···’, ‘랑면가대기, 가대기, 가대기줄, 가대기끈···’, ‘후치, 후치질, 후치날···’. 북한에서는 각 지역에서 쓰이는 논밭갈이 농기구를 모두 조사하여 형태·용도·기능상의 차이를 보이면 모두 문화어로 삼은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북한의 문화어는 북한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전형적인 북한 방언이다(‘가대기’는 남한의 강원도, 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쓰임). 북한의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방언형을 문화어로 삼은 것이다. 북한의 농촌 사람들에게는 표준어인 ‘쟁기’와 ‘보습’ 등의 의미가 북한의 방언 의미와 사뭇 다르기 때문에 북한 방언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서울말을 배제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일상어를 문화어로 삼았다’라고 하는 편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남한에서는 실제로 볼 수 없는 ‘밭귀’도 북한 지역의 방언에 따라 ‘파리, 밭구’로 바꾸었다. ‘파리’는 북한의 산간 오지에서 드물게 쓰는 ‘밭귀’의

방언형임에도 사전에 등재되었음이 흥미롭다(‘과리’와 ‘밭귀’는 한어 ‘把犁’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방언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것을 문화어화하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드베’는 ‘조나 씨를 파종할 때 쓰는 농기구’로서 주로 함경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의 하나이다. 이렇게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써 오던 방언도 문화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물의 명칭을 매우 섬세하고도 미세하게 관찰하고 사전에 올렸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말대로 “로동계급의 계급적 지향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 라거나, “문화어는 방언 가운데서 인민적인 요소들을 모조리 받아들여 자체를 더욱 풍부히 하며”라 한 사실과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만 쓰이는 방언을 문화어화한 것이 이질화를 부채질한 결과가 되었지만, 방언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남한과 꺾 대조적이다.

3.4. 문화어와 평양말

흔히 단편적으로 ‘북한어’를 지칭한 글들 가운데에서 ‘북한어는 평양말’이라거나 또는 ‘평양말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한 예를 볼 수 있다. 이 때의 ‘평양말’이 평안방언의 한 하위 방언인 ‘평양 지역어’를 뜻한 것인지, 아니면 ‘평양에서 쓰이거나 만들어진 말’을 뜻한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조선말대사전』에는 문화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우리의 문화어는 주체적인 언어사상과 당의 올바른 언어정책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지양과 생활 감정에 맞게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조선민족어의 본보기이다.

위 풀이에 의지하면 문화어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말’이다. 그렇다면 ‘평양말’은 구체적으로 국어의 어떤 변종을 의미하는

것인가? 방언은 지역적인 요인 못지 않게 사회적인 요인에 의하여 분화되어 있다. 때문에 평양말의 성격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방언의 한 하위 방언으로서의 평양말(지역 방언의 관점)을 염두에 둘 때, 현재의 문화어는 평양말이라 보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평안방언의 음운이나 어휘적 특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평안 방언은 구개음화가 없을 뿐더러 치음 다음에 상승이중모음이 연결된 말들은 음절부음이 탈락하여 텃디(天地), 텃거당(停車場)처럼 변화하였다. 그리고 주격조사 '-래', 종결어미 '-슴메', '-웨다' 따위가 쓰이나 그 같은 문법 형태들이 문화어로 오른 것은 아니다.

문화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부 방언과 가까운 면이 많다. 음운(맞춤법의 개정에 의하여 고쳐진 두음법칙 표기 등은 제외)이나 어휘 및 어법적 특징이 중부 방언을 기반으로 하여 마련된 표준어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어의 기본적인 바탕은 어휘상으로 볼 때 서울말이다. 가령, 친족 명칭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표준어이자 문화어이다. 평양을 위시한 평안방언의 '부모' 호칭은 '아반, 아바니, 아바지, 오만, 오마니'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인, 장모'는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로 다듬어 쓰고 있다. 그러나 원래 평안방언은 '가시아바니, 가시오마니'이다. 이미 표준어가 평안방언에 널리 보급된 상태의 평양말 또는 표준어를 기반으로 말다듬기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평안·함경방언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지 본디 지역 방언으로서의 평양말에 기반을 두고 문화어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1988년에 김병제가 펴낸 『조선언어지리학시고』의 부록 「조선어방언지도」에는 46장의 방언지도가 실려 있는데, 지도마다 평양과 평남 지역에는 방언형이 없다. 이렇게 방언형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46개의 표제어가 모두 평양말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46개 표제어 가운데 대부분은 전통적인 평양 방언이 아니다. 표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은 표준어와 다른 말. () 속의 단어는 표준어. 2)는 남북한 공통

1) 거마리(거머리), 칼치(갈치), 게사니(거위), 능쟁이(명아주), 반디벌레(반딧불이), 부루(상추), 사라구(씀바귀)

2) 가위, 겨드랑이, 고양이, 그을음, 개암, 게으르다, 귀밀, 귀뚜라미, 꿩이, 나중, 누에, 냉이, 마르다, 멸치, 모이, 무우, 박쥐, 병아리, 뱀장어, 빨다, 새우, 생강, 추워서, 켜다, 키, 확, 여위다, 오이, -습니다, 거짓말, 가르치다, 강냉이, 고추, 그네, 새끼, 잠자리, 졸리다, 종다리, 지렁이

46개의 표제 항목 가운데 고작 7개만이 남한의 표준어와 다를 뿐이다. 그런데 1) 가운데, ‘거마리, 게사니, 능쟁이, 부루’는 평양 방언이지만, ‘반디벌레, 사라구’는 평양 방언이 아닌 듯하며, 2) 가운데, ‘고양이, 가위, 고추, 잠자리, 지렁이, 박쥐’ 등은 역시 평양 방언이 아니다. 평양 방언은 ‘고냉이~광이, 가우, 당추, 쟈자리~붓잔자리, 디레이, 빨쥐’이다. 평안방언에서 ‘고추’는 ‘후추’를 뜻하여 의미가 전혀 다르다. ‘문화어의 기준이 평양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평양말이 아니며 오히려 표준어와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문화어의 기반이 되는 평양말’이라는 것은 서울 중심의 표준어와 여기에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 된다. 문화어는 이러한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해방 이후에 남한과의 단절 속에서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생성된 사회·문화·과학·기술 분야 등의 말이나 말다듬기 운동에서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신조어가 포함된 말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문화어는 평양말이다’ 또는 ‘문화어는 평양말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정의에 가까운 등식적 표현은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표준어는 서울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문화어는 평양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나 남한에서 흔히 평양 방언을 일컬어 ‘평양말’이라 하므로 개념상 혼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민족어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이 진지한 태도로 상대 언어를 정밀하게 관찰하여 그 차이가 무엇이고 그러한 차이가 빚어진 언어내외적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편견이나 아집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의 제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이질화 극복의 진정한 초석이 될 것이다.

비록 방법은 달랐더라도 외래적인 요소를 줄여 가면서 민족어의 순수성을 지키려 노력한 점은 남이나 북이나 같다. 또한 고빈도의 어휘들에서 동질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문화어의 기반이 되는 '평양말'이라는 것도 그 바탕은 표준말이라는 점,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표준어와 북한의 방언을 함께 문화어로 삼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북한어는 아직도 동질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족어의 통합이 희망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남북이 국어순화나 말다듬기 운동에서 축적해 온 경험은 남북한 언어의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일정한 원칙을 세우고 언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꾸준히 새말을 만들어 왔다. 그것이 비록 이질화를 깊게 한 요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보여 준 말다듬기 운동의 정신과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많다. 또 상당수의 방언을 발굴하고 문화어화하여 어휘를 풍부히 하려 한 사실이나 방언을 말다듬기의 재료로 십분 활용하여 고유어의 어휘 체계를 정리하려 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개혁에서 발생한 역기능적인 면도 우리에게서 교훈적이다.

남북한어의 이질화는 '분단-이념-단절과 고립'이라는 연결 고리 속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민족 통합의 새로운 이정이 세워지지 않는 한, 단기간에 남북한어의 통합을 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남북한의 언어를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조건하에서 발생한 국어의 하위 변종

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합이 된다면 남북한어의 이질적인 요소들은 스스로 조정과 통합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다만,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비정치적인 분야의 전문어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족의 가장 두드러진 표징은 곧 언어이다. 언어상의 차이는 곧 세계관의 차이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이질화의 심화를 못내 걱정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서로 상대의 언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이질화 극복의 방안을 모색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